# 국제개발협력 이슈포커스 -2호-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9년 7월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 이슈포커스는 국내외 주목할 만한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정책,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굿네이버스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한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 사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에서 난민과 원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시장이 소득증대와 평화적 공존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하고 향후 다른 국가의 난민지원 사업 혹은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ey message

굿네이버스 탄자니아는 2015년부터 냐루구수 캠프의 콩고, 부룬디 난민과 주변 원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난민 자립 증진 및 난민-원주민 평화공존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5년차를 맞는 굿네이버스 탄자니아의 난민 자립 증진과 난민-원주민 평화공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난민에 대한 일방적 지원 방식이 아닌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라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난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원주민과 난민 간에 교류와 상호의존을 이끌어 양 그룹 간 평화공존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굿네이버스의 탄자니아 난민캠프 사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난민지원 사업 및 개발협력 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업ㆍ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 향후 난민지원 사업 및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ㆍ정책적 제언:

- · 갑작스런 난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난민 수용국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 정부와의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 · 장기화된 난민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사업 재원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 · 시장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평화공존을 달성한다.
- ㆍ각 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여야 한다.
- · 시장운영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사전 예방, 통제 기제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
- $\cdot$  난민의 자립과 평화공존을 위해 사업의 기획-실행-평가 전 단계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 Situation |

#### 최근 국제사회 난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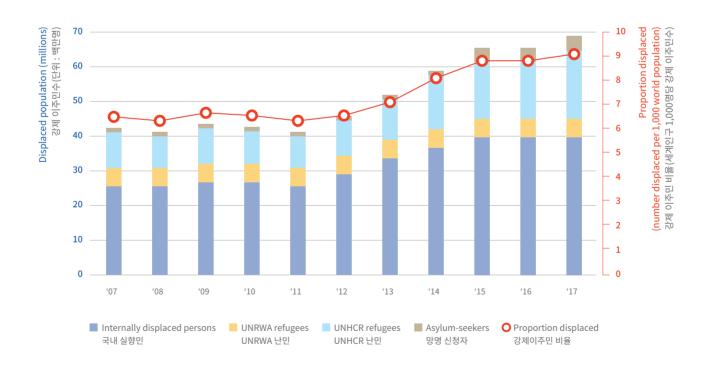
1951년 체결된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혹은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협약 제1조)"

즉, 난민은 '박해'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또는 상주국에 머무를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2018년 1월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현재전 세계적 강제이주민의 수는 6,8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른 나라를 떠도는 난민은 2,540만 명이며, 최근 수단, 시리아 난민 사태 등 세계도처에서 발발한 각종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1,340만 명의 난민이 장기화된 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는 현실이다.<sup>2</sup>

2017년을 기준으로 UNHCR에서 설립, 관리하는 캠프에서 지내는 난민은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2012년 기준으로 UNHCR 난민캠프의 6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2017년 난민 동향 (출처 : UNHCR 웹사이트)



이러한 난민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난민 체류의 장기화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 난민 이슈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행렬에 주목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난민들은 위기가 발생한 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에 남아있다. 그 결과 현재 터키, 파키스탄, 레바논, 이란, 우간다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용 비율은 전체의 약 85%에 이른다. 이 국가들은 재정적,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난민 수용 부담을 안고 있고, 일반적으로 난민들에게 이주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난민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난민을 유발한 분쟁 및 위기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난민의 체류는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야기한 시리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회담이 2016년 2월 유엔을 중심으로 개최되었고, 이어 5월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서는 난민과 이주민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 9월 유엔총회에서는 기존 이슈들을 포함하여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의 결실은 같은 해 9월 20일에 열린 뉴욕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난민과 이주민 보호를 위한 뉴욕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and Global Compact for Migrants)'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난민 보호는 더 이상 한 두개의 특화된 중앙 부처, 유엔난민기구와 몇몇 비정부기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시(도) 정부, 사기업, 시민사회, 종교단체, 학교, 의료 기관과 일반 시민들 모두가 역할을 하는 "범사회적 접근법(whole of society approach)"입니다. 포괄적난민대응체계(CRRF)는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대규모 난민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CRRF는 대규모 난민 상황을 위한 일관되고 신속한 계획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인도적 대응의 개발 사업과의 연결할 것, 난민을 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대하지 않고 전체 커뮤니티와 함께 협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 Frank Remus 대표(UNHCR 한국대표부) / 제2회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포럼(난민과 개발) 기조강연 中

뉴욕선언을 각 국가 수준에서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난민대응체계(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 CRRF)'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난민대응을 위한 체계적이며 범사회적 접근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난민이 수용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CRRF는 난민들의 수용국 정부의 주도적 난민대응과 원주민 커뮤니티의 난민에 대한 폭넓은 수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난민대응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 나아가 난민들과 수용국 간의 공존과 통합과 더불어 난민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 포괄적난민대응체계(CRRF)의 주요 목표 (출처 : 유엔난민기구 공식블로그)

첫째	난민들을 수용하는 나라들에 부담을 덜 주는 것
둘째	난민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
셋째	난민들이 제3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늘리고 다른 부수적인 방안들을 찾는 것
넷째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 굿네이버스 인도적지원(난민지원) 사업 역사 및 현황

굿네이버스는 1994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난민기구(UNHCR)과 협력하여 진행한 르완다 난민지원 긴급구호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인도적지원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인도적지원 사업 초기에는 기존의 다른 난민지원 사업들과 유사하게 긴급구호 중심의 일시 지원, 분쟁상황에 대한 즉각적 인도적 지원으로 시작하여 점차 장기적 위기에 따른 지속 가능한 대응으로 발전시켜왔다. 르완다 긴급구호 사업(1994), 스리랑카 내전 국내실향민 지원(2009), 시리아 난민지원(2014) 등을 시작으로, 굿네이버스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최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자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특별히 난민과 난민수용국 주민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 굿네이버스 난민지원 사업 주요 역사

#### 긴급구호 중심으로 진행 된 인도적 지원사업이 난민지원사업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



자료: 제2회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포럼(난민과 개발) 자료집, p.23.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굿네이버스는 우간다, 잠비아에서는 DR콩고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에서는 DR콩고 난민과 부룬디 난민을, 방글라데시에서는 로힝야 난민을, 니제르에서는 이집트,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 굿네이버스 난민지원 사업 현황

연번	사업국	대상	분야	기간	사업내용	<b>사업규모</b> (단위 : 천원)	파트너	
1	잠비아	DR콩고 난민	생계지원	2019 – 현재	ㆍ 동시장 건축 및 운영 지원	57,500	UNHCR	
2	니제르	이집트,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난민	아동보호	2019 – 현재	· 아동친화공간 (CFS) 건축 및 운영 · 아동발달 프로그램 ·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46,000	UNHCR	
3	우간다	DR콩고 난민	여성보호	2018 – 현재	· Dignity Kit 지원 · 여성역량개발센터 (WDC) 건축 및 운영 · GBV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 소녀클럽 운영	821,738	UNHCR	
4	- 방글라데시	바그리네니	로힝야 난민	여성보호	2018 – 현재	· 여성친화공간 (WFS) 건축 및 운영 · GBV 대응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	230,000	UNICEF
-		도영아 단인	아동보호	2018 – 현재	· 아동친화공간 (CFS) 건축 및 운영 · 아동발달 프로그램 ·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	230,000	UNFPA	
5	탄자니아	DR콩고, 부룬디 난민	생계지원	2014 – 현재	· 공동시장 건축 및 운영 지원 ·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 VSLA 조직 및 교육 · 농업교육 및 기자재 지원	3,800,000	UNHCR UNCDF	
6	케냐	남수단 난민	주거	2014 - 15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	215,000	UNHCR	
7	터키	시리아 난민	아동보호	2013 - 15	· 아동친화공간 구축 ·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 월동 용품 지원	2,604,920	ICRC	

자료:제2회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포럼(난민과 개발)자료집(p.24) 내용 재구성.

## 국제개발협력 이슈

이 장에서는 굿네이버스가 수행해온 다양한 인도적지원 사업 중에서도 탄자니아 내 난민과 원주민의 경제적 자립 향상과 평화 공존을 위해 2015년에 시작된 난민캠프 공동시장 사업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시장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업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난민캠프 및 개발협력사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

#### 굿네이버스 인도적지원 사업 사례: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 공동시장 사업

탄자니아 내 난민의 수는 325,796명(2019.3.31. 기준)으로 집계되며, 이중 부룬디 난민은 74%, 콩고 난민은 25.8%를 차지하고 있다. 탄자니아 난민 자립 및 난민-원주민 평화공존 강화 사업은 2015년부터 냐루구수 캠프의 콩고 난민 대상 시장 건립 사업으로 시작되어 2015년 중순에 발생한 부룬디 난민 사태로 신설된 은두타, 음텐델리 캠프의 부룬디 난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중 굿네이버스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연구 대상으로는 3개 캠프 중 냐루구수 캠프를 선정하여, 냐루구수 난민캠프 사업 성과를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탄자니아 난민 현황

(출처: UNHCR (2019.3.31.기준)) 난민캠프 내 국가별 인구 Lake Victorla · 콩고 난민: 84,040명 **RWANDA** (1996년 콩고내전 이후, 장기정착난민) KAGERA · 부룬디 난민: 198,818명 (2015년 4월 부룬디 사태 이후 유입) MWANZA 37,068 Mtendeli Camp **BURUNDI** 난민 주요 구성원 Kibondo **SHINYANGA** · 음텐델리 캠프: 부룬디 난민 92,475 · 은두타 캠프 : 부룬디 난민 KIGOMA · 냐루구수 캠프: 콩고, 부룬디 난민 Ulyankulu Kasulu 5,068 153,625 TABORA Kigoma 23,047 Mishamo Lake Kigoma Villages Victorla 3,288 KATAVI Katumba 10,831

####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난민 자립 및 난민-원주민 평화공존 강화 사업 주요 활동



자료: 제2회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포럼(난민과 개발) 자료집, p.34.

나루구수 캠프는 장기화된 난민캠프로서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캠프가 자리한 키고마 지역은 탄자니아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원주민들로부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탄자니아 정부도 키고마 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굿네이버스는 난민과 원주민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UNHCR과 WFP와 함께 협의하여 난민 자립을 위한 공동시장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2015년 한국 정부의 인도적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장기정착난민의 생계지원 및 자립강화를 목적으로 난민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시장 건축하고,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난민과 원주민이 동수로 구성된 시장운영위원회 운영하였다. 이후 직업훈련, 창업키트 제공, 저축그룹(VSLA)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해나갔으며, 현재는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난민 자립 지원 및 난민과 원주민 공동체 간 평화적 공존 강화, 에너지 접근성 보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업으로 발전, 지속되고 있다.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 사업(2015-2018) 주요 성과 요약						
2015년	· 시장 건축을 통해 시장 참여자 약 5,000여명 달성 · 시장운영위원회 30명 구성하여 운영 지원 (여성 60%, 부룬디 난민 5명, 콩고 난민 11명, 원주민 14명 참여) · 생계기회 접근성 증진: 역량강화 교육 소상인 199명 실시(여성 57%, 부룬디 31명, 콩고 95명, 원주민 73명)					
2016년	· 시장 시설 개선 : 추가 키오스크, 탁아소, 연결통로, 창고 등 건립 · 생계기회 접근성 증진 : 마을신용조합(VSLA) 설립, 소득증대그룹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기업가 교육 진행 (콩고 난민 59명, 부룬디 난민 170명, 원주민 23명 참여)					
2017년	· 시장 운영 역량 강화 : 시장운영위원회 및 역량강화 훈련, 정관 설립 · 생계기회 접근성 강화 : 마을신용조합 지원(콩고 난민 158명, 부룬디 난민 233명 참여), 직업교육 및 창업 지원					
2018년	· 생계기회 접근성 지속 강화 : 비즈니스 및 직업교육 실시, 다목적센터 태양광 전원 설치 · 에너지 접근성 증진 : 축열조리기(RHC) 제작그룹 훈련, 차콜 브리켓 제작 교육, 스토브 지원					

출처 : 굿네이버스 탄자니아(2015-201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탄자니아 냐루구수캠프 난민자립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연구 분석 결과, 냐루구수 난민캠프 공동시장은 난민과 인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자율적인 경제활동의 확대와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제공함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관찰,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난민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

난민들의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난민들이 공동시장의 행상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난민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 기점으로 공동시장에 사업장이 있는 난민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은 67,000TZS(한화 약 33,000원)로 사업장이 없는 난민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인 19,000TZS(한화 약 9,000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난민들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서 지급된 배급품이 필요 없을 때 공동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난민 가구의 소득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셋째, 공동시장의 물품 가격이 난민캠프 내 물품보다 싸기 때문에 공동시장을 활용하여 필요 물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할 경우 난민 가구의 소득이 증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시장 내 사업장이 난민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소득액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동시장 내 사업장은 난민과 원주민 모두의 생활수준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 시장 이용에 따른 난민의 소득 (월평균 소득)

시장에 사업장이 있는 난민



**67,000**TZS (한화 약 33,000원)

시장에 사업장이 없는 난민



**19,000**TZS (한화약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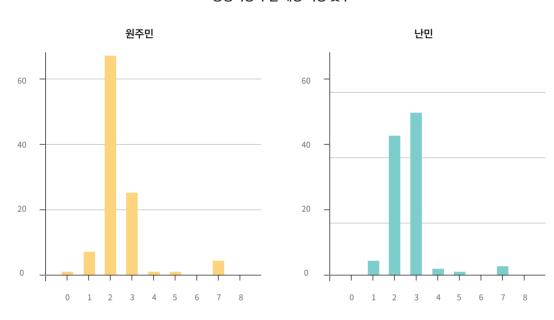
직업훈련을 통해 빵 굽는 기술을 배워 제빵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손으로 만든 빵으로 돈을 벌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 시장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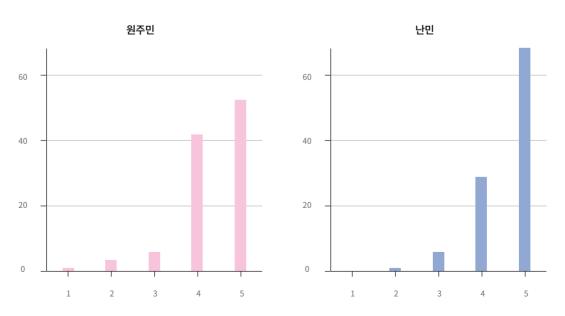


공동시장에 대한 만족도도 원주민과 난민 모두 '아주 만족한다(very satisfied=5)'이거나 '만족한다(satisfied=4)'는 답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민의 60%가 넘는 응답자가 아주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여 난민 집단이 공동시장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난민과 원주민에게 공동시장의 이상적인 개장 횟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절반 정도의 난민이 주 3회 공동시장이 개최되었으면 한다고 응답했고, 원주민의 60% 이상이 주 2회 개최되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보였다. 이는 기존에 시장이 주 1회 열렸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두 그룹 모두 공동시장이 더 자주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난민이 원주민에 비해 공동시장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공동시장 주별 개장 희망 횟수



#### 공동시장 만족도



#### 2) 난민의 심리적 자립성 강화

시장이 생기기 전 난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 종종 범죄도 발생했습니다.하지만 시장운영위원회의 각 대표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시장은 양쪽 모두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우닐리자 왐브라 / 탄자니아 마케레 지방 정부 관료

공동시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난민에게 본국으로 귀환되기 이전에 난민 생활 중에도 실제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미용기술, 제빵, 비누 제작 관련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당장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난민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는 삶, 현실적인 기회가 열려 있는 삶을 가능하게 돕고 있었다. 둘째, 난민과 원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시장운영위원회를 통해 난민들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심리적 자립성을 키우고 있다. 시장운영위원회는 난민 대표 15명, 지역주민 대표 15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2018년 말 새로 뽑은 제2대 시장운영위원회는 등록 상인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하여 난민 집단들은 하나의 자치 경험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동시장을 통해 소비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난민캠프 내 난민들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상태를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접근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난민캠프 내 다양한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직업훈련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서 시장을 통해 역량강화(empowerment)를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고 있다.



직업훈련센터에서 재봉교육 진행하는 난민 여성



냐루구수 시장 상인



#### 3) 난민과 원주민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

46 시장에는 더는 난민인지 주민인지 신경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난민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대화해보니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상황이 다를 뿐,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냐루구수 난민캠프 인근 지역 주민

냐루구수 캠프 공동시장은 난민과 원주민의 평화적 공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건설된 시장은 2018년 등록된 상인 수가 2,000여명에 이르고, 주 1회 열리던 시장이 주 3회까지 확대되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활성화되었고, 시장규모가 수십 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시장의 축소는 지역경제 축소로 직결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공동시장 건축 이전에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상호 적대적이던 두 집단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공동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증대시키기 위해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게 되었다. 둘째, 공동시장은 난민과 원주민 집단 간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난민과 지역주민 구분 없이 친구를 사귀고 이러한 교류 확대는 고용관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공동시장 이전에 원주민들 내 난민캠프에 대한 불만, 난민 장기 체류가 환경, 치안 문제들을 초래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공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난민과의 상호작용, 대화가 크게 늘어나면서 갈등과 공포 또는 혐오 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난민 또한 기존에 원주민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존재했다가 공동시장 건축 이후 난민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와 폭력에 노출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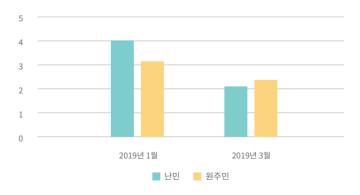
직업훈련센터에서 미용교육 받고 있는 난민과 지역민



냐루구수 시장 모습

# 단자니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2019년 3월 갑작스런 공동시장 폐쇄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시장이 폐쇄되면서, 시장 폐쇄가 난민과 원주민 사이의 평화적 공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시장이 열리던 시기(2019년 1월)와 시장이 폐쇄된 시기(2019년 3월)에 난민과 원주민에게 난민캠프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난민과 원주민 모두 공동시장 폐쇄 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난민캠프 공동시장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난민과 원주민 모두 응답한 것으로, 이들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난민의 경제적 기회 제공



#### **Recommendations**

#### 향후 난민지원 사업 및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ㆍ정책적 제언

#### 갑작스런 난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난민 수용국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난민 정책이 우호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난민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등 각기 다른 대응책을 내놓기도 한다. 따라서 현지 난민 정책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것은 정부 정책 결정으로부터 오는 사업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난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옹호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정부와의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정부와의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거버넌스가 취약한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는 정부 정책이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결정되고 공지되는 경우가 많기에 다양한 정부 관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 장기화된 난민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사업 재원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장기화된 난민사업 진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자원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각기 다른 성격의 재원이 한 사업관리체계 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각 공여자별로 성과보고 및 회계보고가 다르기에 이를 대비해 성과관리, 행정, 회계 역량개발도 필요하다.

#### 시장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평화공존을 달성한다.

시장은 경제적 교류의 장 이상의 기능을 가지므로, 난민과 원주민 간의 평화적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의 소통의 장 기능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교류 활동들을 다양하게 구상해야 한다. 특히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스포츠, 게임, 댄스,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룹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적 공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각 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여야 한다.

난민을 대상으로 한 구호 및 개발 사업은 주로 UNHCR에서 총괄하며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NGO들이 사업 분야(난민 보호 및 주거지원, 식량 및 영양 지원, 교육, 생계 및 자립 지원 등)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난민 지원을 위해서는 각 영역의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착수 준비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사업 진행 중에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시장운영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사전 예방, 통제 기제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

남녀 성비를 고려한 난민 및 원주민 대표자들로 구성된 시장운영위원회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원 선출시 복수 감독 기관(정부, NGO, UNHCR) 개입 및 모니터링, 회의록 및 회계장부 수시 모니터링, 정기적 상인 및 이용자 총회 개최, 시장의 평화적이고 건강한 운영에 대한 정기적 트레이닝 실시 등이 필요하다.

#### 난민의 자립과 평화공존을 위해 사업의 기획-실행-평가 전 단계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최초 조사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원주민 커뮤니티가 민주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의사결정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컨센서스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전 단계에 걸쳐 원주민들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약어

줄임말	영문명	국문명
CRRF	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	포괄적난민대응체계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 실향민
GBV	Gender-based Violence	성차별기반폭력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유엔자본개발기금
UNFPA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유엔인구활동기금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VSLA	Village Savings and Loans Association	마을신용조합
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 참고문헌|

굿네이버스. 한국외국어대학교(2019). 공동시장을 활용한 난민의 자립성 강화 및 원주민과의 평화공존: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 사업 연구. 굿네이버스(2019). 제2회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포럼(난민과 개발) 자료집(2019.6.11.). 굿네이버스 탄자니아(2015-201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탄자니아 냐루구수 캠프 난민자립지원사업 결과보고서.

